

MGP 분석을 이용한 날개응애류 군집 비교 : 남산, 광릉, 점봉산

이준호, 강방훈*, 박홍현, 정철의**

(서울대학교, *농촌진흥청 IMP사업단, **Dept. Entomology, Oregon State University)

본 연구는 산림 토양내에서 종 수와 밀도가 매우 높아 서식지 환경을 대표할 수 있는 날개응애류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조사는 환경적인 도태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고려되는 서울시 소재 남산, 경기도 포천군 소재 광릉, 강원도 인제군 소재 점봉산에서 1993년부터 1996년에 걸쳐 이루어졌다.

조사지에서 종 수는 침엽수림의 경우 남산이 74종으로 가장 낮았고, 광릉, 점봉산이 각각 103종, 102종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활엽수림의 경우 남산이 87종으로 가장 낮았고, 광릉, 점봉산이 각각 114종, 113종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개체수는 침엽수림, 활엽수림 모두 남산<광릉<점봉산 순으로 밀도가 높게 나타났다. 전체 개체수의 5% 이상을 차지하는 우점종들은 조사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날개응애류의 형태에 따른 주요 그룹들인 접문류(Macropylina), 무익류(Gymnonota), 유익류(Poronota)에 대해 MGP 분석을 시도하였다. 종수 백분율을 이용한 MGP-I 분석에서 침엽수림, 활엽수림 모두에서 남산과 광릉은 O형을 나타낸 반면, 점봉산에서는 MG형을 나타내었는데, 이런 결과는 靑木(1983), 權과 崔(1992)가 보고한 산림토양에서 G형, MG형과 일치하였다. 개체수 백분율을 이용한 MGP-II 분석에서는 침엽수림에서는 남산에서 P형을 나타낸 반면, 광릉과 점봉산에서 G형을 나타내었고, 활엽수림에서는 남산에서 O형, 광릉에서는 GP형, 점봉산에서 G형을 나타내었는데, 郭(1987)의 MGP-II 분석과 광릉, 점봉산에서 결과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날개응애류 군집에 대한 MGP 분석을 이용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